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

전북대 권대규 교수 연구팀, 첫 전문가 토론회 열고 정부협력 등 방안 모색

전북대학교 권대규 교수(공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연구팀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권 교수팀은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강화를 목표로 첫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산업·의료·연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전북연구원 이종섭 선임연구원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을,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신혜리 교수는 'AgeTech 개념과 국내외 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참석자들은 고령친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연계 및 예산 확보 △산업 생태계 조성 △입지 전략 △지역 인프라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전략사업이라며, 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사업 실적 제시와 예산 연계가 핵심이라고 했다.

또한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존 돌봄 중심의 제품군을 넘어 건강한 노



전북대학교 권대규 교수 연구팀이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강화를 목표로 첫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인을 위한 일상생활 보조기기와 예방 중심 헬스케어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령자 놀이터'와 같은 융복합적 공간을 시범사업으로 도입, 실증 중심의 단지 설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거점으로 임상시험부터 인허가, 수가 연계까지 지원하는 전주 기 실증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초기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더불어,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참석자들은 산업과 급효화, 복지비용 절감, 삶의 질 향상 등 정량·정성 지표를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규 교수 연구팀은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과 추가 전문가 회의를 이어가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정부 예산 확보 및 정책화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 특별전시장에서 전북교총이 주최한 '제56회 전북교육자료전'이 열렸다.

교사들이 만든 수업자료 한눈에

전북교총 '교육자료전'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지난 2일 전북교총 특별전시장에서 '제56회 전북교육자료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고 연구한 교수·학습자료, 학습 보조교구, 교육 아이디어 등을 전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에 유·초·중등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교육현장에서 실제 적용·활용 가능한 다양한 수업자료들을 출품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놀

이 중심 교육, 기초학력 보장, 인성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물이 소개됐다.

오준영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이 전시되고, 또 아이들의 배움이 더욱 깊어지도록 돕는 실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교원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향후에도 교육자료전, 학술세미나, 수업혁신 연수 등을 통해 교원 전문성 향상과 교권 보호,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내일부터 3기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5일부터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3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는 학생 개별학습 시간을 활용해 자기주도적 영어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와의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해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3기부터는 참여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 및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취업 중단 학생 및 학부모의 지원 문의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수업은 레벨별 맞춤 그룹형태로 운영되며, 원어민 강사 1명당 학생 3명이 참여하는 1:3 수업 형태로 진행된다.

영어교육 소외 지역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생활 중심의 영어사용 기회를 제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영어 실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수업은 주 2회·1차시당 30분씩, 9주간 이뤄진다. 운영 기간은 8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5~20일 온라인 사이트(<http://www.jheenglish.co.kr/>)에 접속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원어민 화상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며 "3기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북의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영어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하반기 전임교원 4명 임용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일 대학 본부 2층 회의실에서 신입교수 4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임용장 수여식에는 박병춘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및 교과과장, 내빈 등이 참석해 신입교수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하반기 교육공무원(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신입교수는 △수학교육과 조교수 손태환(한국고원대학교 교육학박사 초등수학교육 전공) △과학교육과 조교수 신현정(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지구과학교육 전공) △과학교육과 조교수 권문호(경북대학교 교육학박사 물리교육 전공 △음악교



육과 조교수 임현택(독일프란츠리스트바이마르 음악대학교음악학 전공) 등이다.

박병춘 총장은 "전주교육대학교 신입교수로서 활약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의학계열 맞춤형 진학컨설팅

23일 열려... 오늘부터 사전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전주비전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의학계열 맞춤형 진학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의대 정원 변동과 대입전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지원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대입상담팀 교사들이 참여해 학생부, 모의고사 성적, 내신 등을 바탕으로 1:1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생활기록부, 성적표 등)를 지참해 컨설팅 장소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4일부터 전북진로진학 누리집(<https://www.jbe.go.kr/jinr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안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